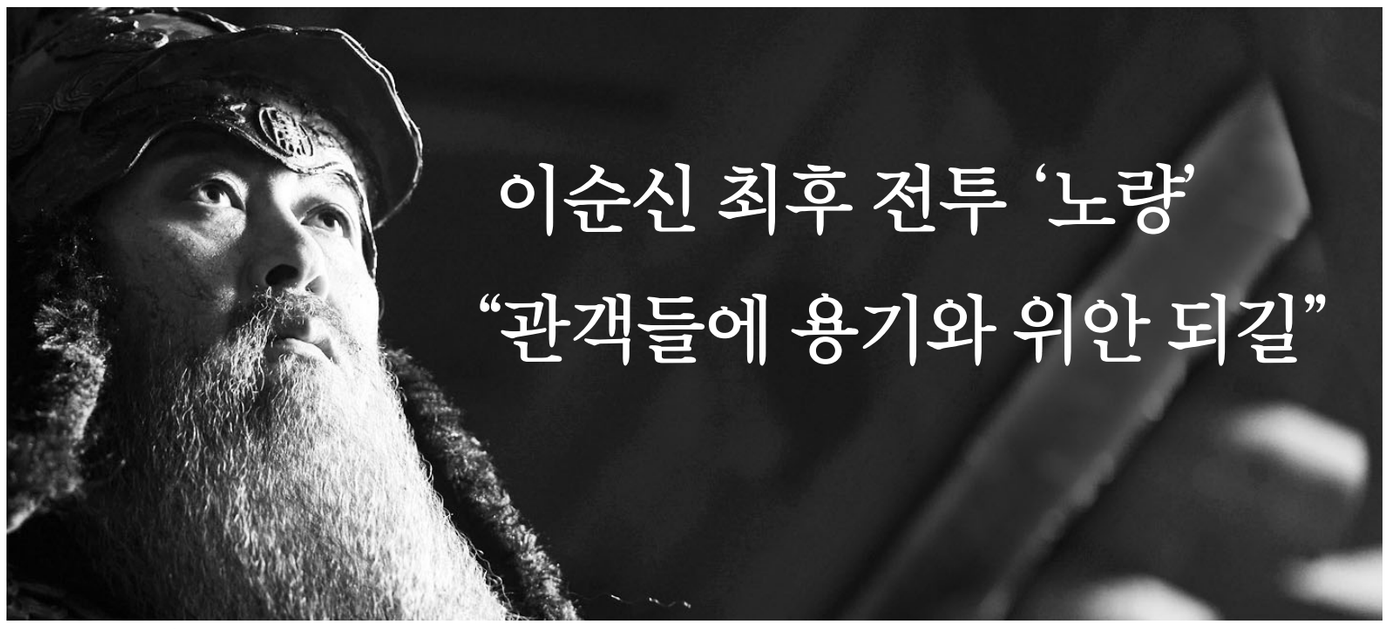

이순신 최후 전투 '노량' "관객들에 용기와 위안 되길"

'노량: 죽음의 바다'의 한 장면.

김한민 감독 이순신 3부작 마지막
노량해전 그린 '노량:죽음의 바다'
12월20일 개봉…1편 개봉 10년만
이순신 역 맡은 김윤석
"장군은 우리나라 국민의 자부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장대한 스펙터클로 펼쳐낸 김한민 감독이 '명량'(2014)과 '한산: 용의 출현'(2022)에 이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작품의 출정 준비를 마쳤다.

김 감독의 이순신 3부작 마지막 편으로 노량해전을 그린 '노량: 죽음의 바다'가 다음 달 20일 개봉한다. 1편인 '명량'이 개봉한 지 거의 10년 만이다. 노량해전은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조선에서 퇴각하는 왜군을 섬멸하고 숨을 거둔 최후의 전투다.

이번 작품에서도 메가폰을 잡은 김 감독은 15일 서울 광진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명량'과 '한산'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단계적인 업그레이드까지 '노량'에 다 녹여냈다"고 말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7년이 지난 1598년 12월 왜군이 조선에서 퇴각할 때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수군과 200여 척의 연합 함대를 꾸려 500여 척의 왜군에 대승을 거둔 전투다.

김 감독은 이 전투에 대해 "명나라 수군까지 합류한 동아시아 최대의 세계사적인 해전으로, 밤에 시작해 태양이 뜨고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진 엄청난 전투였다"고 설명했다.

'노량'은 이 전투를 웅장한 스펙터클에 담았다. 해전 장면만 1시간 40분 분량에 달한다. 함선들의 포격과 충돌뿐 아니라 선상에서 벌어진 격렬한 백병전도 재현했다.

해전 장면은 실제 바다가 아닌 세트장에서 촬영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에 설치한 3천 평 규모의 대형 세트장에서 실제 비율의 판옥선 등으로 촬영하고, 시각특수효과(VFX) 기술로 당시 해전을 실감 나게 재현했다.

김 감독은 "이순신 장군 3부작을 해오는 동안 그분을 알면 알수록 존경심이 커졌다"며 "그런 마음을 더 크게 담은 게 '노량'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명량'과 '한산'의 관객들로부터 '힘이 된다', '희망을 얻었다'는 반응을 접하고 감명받았다며 "'노량'도 진정으로 위로와 용기, 위안이 되는 작품이 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명량'의 최민식, '한산'의 박해일에 이어 '노량'에서 이순신 역을 맡은 배우는 김윤석이다.

김 감독은 '명량'의 이순신을 불과 같은 용장(勇將), '한산'의 이순신을 물과 같은 지장(智將)에 비유하고 "'노량'에선 두 가지가 융합된 속에서 시너지가 나와야 했다. 두 가지를 결합한 아우라를 가진 배우는 김윤석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윤석은 "이순신 장군 역은 너무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이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선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분이 계신 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순신 장군과 생사를 건 대결을 벌이는 왜군 지휘관 시마즈 역은 관록의 배우 백윤식이 맡았다. 올해 76세인 그는 일본에서 제작해 가져온 30㎏짜리 갑옷을 입고 연기했다.

백윤식은 시마즈에 대해 "노련한 전략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이순신 장군에 맞서는 캐릭터"라며 "맹렬한 모습을 강렬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명량'이나 '한산'과는 달리 '노량'에선 명나라 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왜군을 섬멸하려고 하지만, 명나라 장수들은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갈등을 빚는다. 명나라 장수 진린과 등자룡 역은 각각 정재영과 허준호가 맡았다. 이 영화에서 왜군은 일본어로, 명나라 군은 중국어로 연기한다.

허준호는 "극장에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한산'보다 업그레이드된 해전 액션이 나온다. 기대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성규, 이규형, 이무생, 최덕문, 안보현, 박명훈, 박훈, 문정희 등도 출연했다. 김 감독은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넘칠 것"이라고 했다.

김 감독은 '노량'보다 한 달쯤 앞선 이달 22일 개봉하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두 작품의 흥행이) 한국 영화가 부활하는 신호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015B·박정현 캐럴 '이츠 어 뉴 크리스마스' 공개

프로듀서 그룹 공일오비(015B)가 가수 박정현과 협업한 캐럴 '이츠 어 뉴 크리스마스'(It's a New Christmas·사진)를 공개한다.

지난 15일 소속사 더공일오비에 따르면 신곡은 015B가 데뷔 이후 처음 선보이는 캐럴로,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바뀌어도 소중한 사람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박정현은 가창으로 참여했다.

015B 프로듀서 정석원은 박정현의 여러 대표곡을 작사·작곡했으며, 박정현은 015B의 정규 7집 수록곡에도 피처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츠 어 뉴 크리스마스'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연합뉴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주연 이병헌.

'콘크리트 유토피아' 대종상 6관왕

작품상·이병헌 남우주연상 등
OTT 시리즈 작품상은 '무빙'
여우주연상 '비닐하우스' 김서형
감독상 류승완, 공로상 장미희

김서형

장미희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올해 대종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6관왕에 올랐다.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9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작품상을 받았다.지난 8월 개봉한 이 작품은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영화다.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변승민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이 작품의 배경은 겨울인데,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찍었다"며 배우와 스태프의 노고를 부각했다.

이번 수상작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개봉한 모든 영화를 대상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선정됐다. 본심에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선발한 100명의 국민 심사위원단도 참여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작품상 외에도 남우주연상(배우 이병헌), 여우조연상(김선영), 시각효과상(은재현), 음향효과상(김석원), 미술상(조화성)을 받았다.

영화 촬영 일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은 영상으로 보낸 소감에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극장에 타격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임에도, 많은 분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관람해줘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여우주연상은 독립영화 '비닐하우스'에서 주연한 김서형에게 돌아갔다. 이 영화는 1만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김서형은 "'비닐하우스'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내용을 소개하고 "대종상이 제게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줬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그 자리에 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계를 이끌어온 관록의 배우에게 주는 공로상은 장미희가 받았다. 시상식에 나온 장미희는 "48년간 연기자의 생활을 이어왔다"며 "미약하나마 앞으로도 한국 영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감독상은 '밀수'를 연출한 류승완 감독이 받았다. 류 감독도 시상식에는 나오지 않고 소감을 담은 영상을 보냈다.

남우조연상은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에 출연한 오정세에게 수여됐다. 오정세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시상식에 불참했다.

신인여우상은 '다음 소희'의 김시은, 신인남우상은 '귀공자'로 스크린에 데뷔한 김선호가 받았다. 김선호는 "영화는 처음이었는데, 작품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의 노고와 열정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며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고, 영광이었다"고 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리즈 작품상은 디즈니+ '무빙'이 받았다. 시리즈 감독상은 디즈니+ '카지노'의 강윤성 감독, 남우상은 '카지노'의 최민식, 여우상은 '무빙'의 한효주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대 연 건 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꿀꽈배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꿀꽈배기2개 1000원, 옛날핫도그1개 1000원
치즈핫도그1개 1500원, 찹쌀도너스2개 1000원
팥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급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박 당 화 랑
광주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엣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등
소장 박관융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